

ISSUE PAPER

2022 Vol. **02**

| 발행인 윤효식

| 발행일 2022. 7. 27.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에서 두발로 서다

- 01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준비가 필요한 것 알고 있나요?
- 02 자립을 준비 하는 청소년의 이야기
- 03 가정 밖 청소년 어떻게 알고 있나요?
- 04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에 관심을 가져야



01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준비가 필요한 것 알고 있나요?

‘나의 자립의 시작은 자립지원관 부터입니다.’

저는 가정폭력문제로 17세부터 청소년중장기쉼터에서 살았습니다. 쉼터를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선생님을 통해 자립지원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자립지원관 생활과 고시원 생활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직장을 구하게 되면 단체생활 보다는 혼자 생활이 더 나을 것 같아 초기 고시원비와 필요한 물품지원 도움을 받으며 처음으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자립 후, 저에게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였는데, 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직업적성테스트를 통해 저에게 맞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때 조금 더 좁은 범위 안에서 찾을 수 있었고 직장예절교육, 면접방법, 부당대우 대처 방법 등 여러 가지 직장에서 필요로 한 것을 교육받아 취업을 하였고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서 독립해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경제 교육,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상식과 같은 다양한 교육을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립지원관의 이러한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를 통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직까지는 완벽한 자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성공적인 자립을 하게 된다면 도움주신 선생님들께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00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보고서 중 청소년 체험수기 발췌 및 일부수정

-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일컫음(「청소년복지 지원법」제 2조제5호)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일시(이동형, 고정형)쉼터는 전국 32개소, 단·장기 쉼터 103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0개소 운영되고 있음(2022, 6월 기준)
-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생활·자립 시설로 거리상담을 통한 긴급구조·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자립·생활지원과 같은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기능을 함
- 여성가족부에서는 쉼터 퇴소 후 청소년에게 자립수당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자립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자립해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준비를 비롯하여 주거관리·경제·건강 등 자립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적인 이해와 관심 필요

- 국내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은 ‘가정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용어의 혼재에서 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줄곧 문제 제기를 하였음(전경숙, 이의정, 2012). 실제 사춘기적 반항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가정 내 학대나 방임을 피해 가정에서 탈출하거나 가정이 해체되어 돌아갈 가정이 없어서 가정 밖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부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9)의 통계에 따르면, 쉼터에 오게 된 청소년 중 생존형, 방임형의 경우 폭력과 학대 혹은 방임이 원인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집을 나와 쉼터를 선택하게 됨.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정폭력, 학대의 악순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쉼터 유형별 가출 원인

(단위: %)

구 분	일시(이동형)	일시(고정형)	단기	중장기
생존형(폭력, 학대 등으로 가출)	8.7	33.0	36.4	40.1
방임형(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	7.0	16.7	12.8	20.9
시위형(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	15.2	8.2	11.8	8.0
방랑형(자유로운 거리생활 위함)	41.5	11.1	10.2	5.8
유희형(친구와 놀기 위해 가출)	22.7	8.9	4.8	5.5
시설형(보육, 양육시설에서 방황)	3.9	10.7	8.3	12.1
기타	1.0	11.4	15.7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2019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될까봐	35.3	36.5	37.2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23.7	18.0	20.0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11.1	8.8	8.1
갈 집이 없으므로	7.2	11.5	16.8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4.2	0.4	0.0
돈을 벌 수 있어서	5.1	4.8	2.2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스러우므로	10.1	15.9	8.8
기타	3.3	4.1	6.9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2019, p.24.

-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될까봐,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가 두려워서, 가정으로 돌아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가 가장 많아 가정이 청소년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가정 밖을 선택하게 됨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2019년 진행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연구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 중 46.0%는 자립을 원했고,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9.6%에 불과함(김은정 외, 2019)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에게는 사회가 가정이 되어 주어야

-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에게는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립의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청소년기에 쉼터, 자립지원관을 통해 자립준비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동안 훈련이 되지 않고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준비 없이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됨
-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2021년 '가출청소년'의 용어가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뀌었음.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적 용어가 변경된 것을 알리고 자립지원 기관의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청소년 맞춤형 자립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¹⁾
- 이를 위해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문헌조사와 가정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자립 경험과 의미를 종합하여 제시함



1) 2017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편견의 의미가 강한 '가출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변경을 권고하였고,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가 변경됨

02 자립을 준비 하는 청소년의 이야기

단기쉼터 입소청소년 2명과 중장기쉼터 입소청소년 2명, 자립지원관 주거지원형 이용 청소년 2명, 혼합형 입소(이용)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총 8명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인터뷰함

* 인용된 인터뷰는 2021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와 청소년 인터뷰를 재구성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하여 제시함

Q1. 자립을 준비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자립하면서 가장 직면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후원이 없다는 것, 혼자 무엇이든 다 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고립감 이었어요.”



청소년 3

“제가 집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받은 돈으로만 미용 학원비를 다 내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나마 쉼터에서 지원해줘서 해결이 된 건데 쉼터에서 이제 더 이상 그걸 커버해줄 수가 없어서 그 때 진짜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부모님이랑 연락이 이제 끊겼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신다던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받는 모욕들.. 그런 거를 이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기댈 수조차 없는 환경이었죠.”



청소년 5



청소년 6

“이제 혼자 있다는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거는 사실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뭐 해결하는 것 없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Q2. 자립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 자립에 있어 독립할 수 있는 진로나 취업, 사회에 나가서 직장과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신·육체적 건강이 가장 필요해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목표나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해서 제일 중요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워서 자립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격취득을 도와주거나...”



자립을 하게 되면 집을 구하는 문제부터 공과금이나 식비도 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절약하는 습관, 경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의사소통이나 어느 정도 혼자서 해결할 줄도 알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해결할 줄 알아야 온전한 자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이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대처 방법도 모르고 이러면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가끔씩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꾸준히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 멘탈이 제일... 내 마음, 내 생각을 건강하게 유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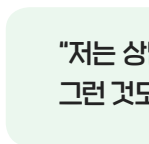


Q3. 자립을 준비하면서 도움이 된 것은?

“경제적지원, 심리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던 심리지원상담, 시설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나중에 잘 되어 있을 거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쉼터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주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금전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으고는 있거든요.”



“저는 상담 받으면서 약간 생각하는 습관도 안 좋게 생각하는 습관 있잖아요. 꼬리를 무는... 그런 것도 교정을 했고... 지금도 하려고 노력중이라서...”





청소년 6

"몸으로 아픈 건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앞으로도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본인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Q4. 나에게 자립의 의미는?

"자립은 독립을 넘어 나의 의지, 나의 자립 의지가 동반된 독립이에요"



청소년 8

"내가 자립하기까지의 단계, 단계들을 거쳐야 내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잖아요, 쉽터로 돌아가지 않게... 근데 그 단계 하나하나 거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닦쳤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험난한 세상에 혼자서 버티려면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할 수 있다는 내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다."



청소년 3



청소년 6

"정말 의지가 필요해요... 나 대신에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 의지가 있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저는 뭔가 인생에 첫 도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회에서 혼자가 된다는 그런 느낌에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그걸 다 안고서 선택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청소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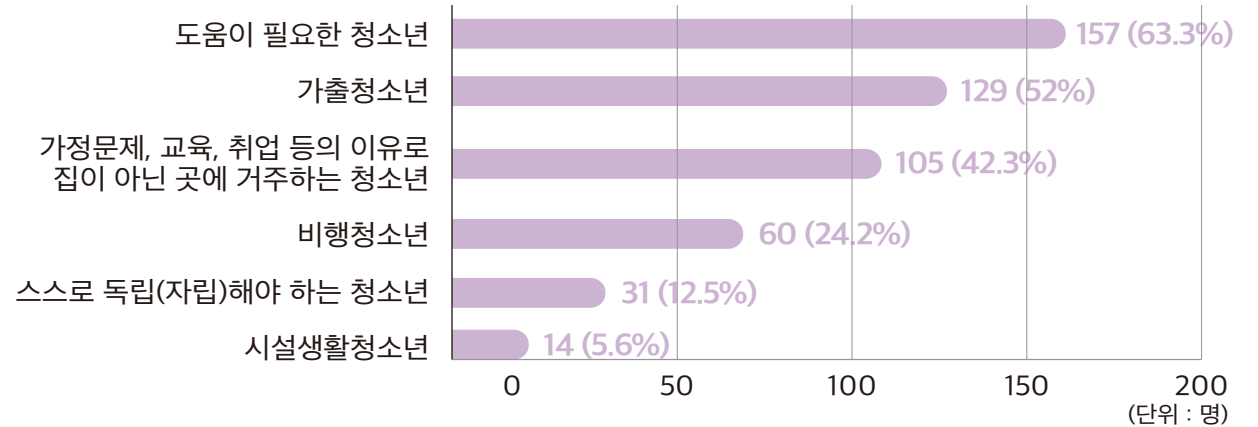


03 가정 밖 청소년 어떻게 알고 있나요? : 대한민국 성인 248명에게 묻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Quick Research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홈페이지, SNS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인 248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일시 2022.03.23. - 2022.03.26.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 응답 결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157명, 63.3%), 가출청소년(129명, 52%), 가정문제, 교육, 취업 등의 이유로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105명, 42.3%), 비행청소년(60명, 24.2%)의 순으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낮게 나타남
- 일반인들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단어)를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자립이나 도움보다 가출과 비행,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의 빈도가 높음
- 하지만, 보호가 필요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가족문제, 교육받지 못한, 가정의 부재와 같이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단어가 제시되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일탈적이거나 고착화된 편견이 아닌 다양한 맥락적 상황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일반인들에게 많은 인식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직면한 문제 및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정책과 내용을 알리고자 함



04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에 관심을 가져야

첫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정책의 필요, 그 시작은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부터

- 자립은 나이가 되어 성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성인기에 이르러 획득 가능한데, 이 시기에 충분한 가족 자원(family resources)을 갖춘 보호자는 자녀가 자립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주요한 자원을 제공하지만(Swartz, 2008), 가정 내 갈등·폭력·방임·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적 보호 및 자원이 필요하므로 자립의 무게는 일반 청소년과는 다름. 가정 밖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가 안전망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제정이 되며 서서히 이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이해가 높아진 것처럼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
-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프로야구경기장 및 도시철도공사, 편의점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고, 하반기부터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물 제작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계획임
- 이러한 인식개선의 노력에 발 맞추어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시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이종민, 2021.11.24)을 진행함. 비영리재단인 초록우산재단과 월드비전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김한솔, 2020.08.11)을 통해 지역에서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일조하였으며 지자체의 노력이 덧붙여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성공적인 사례가 있음(경기도조례 제6959호, 2021. 3.16).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종자돈을 만들기 위한 ‘자립두배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엿보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경우 작년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마련을 위한 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제주환경일보, 2021.03.03.)하고 있음
- 최근 가정 밖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시작되고 있음(경인매일, 2022.07.05.)
-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이라는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자립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및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들이 온전히 사회에 두발로 설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회적 포용력이 필요한 시점임

둘째,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확충 및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

- 2022년 4월 기준, 전국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충남지역 총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어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자립지원시설에 가정 밖 청소년에게 정보제공, 심리정서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전문가양성이 더욱 필요함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정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지역 센터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셋째, 심리·정서적 지원 측면을 강화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근 일 년 동안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비율이 62.5%로 (김희진 외, 2018) 고위기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 해 둔 심리·정서에 집중개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21년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그리고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 및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배포함
- 매뉴얼에는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주거관리, 경제관리, 진로·직업, 대인관계, 지역자원 활용 영역을 모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자립을 준비 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 202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지원하고 있음

■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자립이 필요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 중 46.0%는 자립을 원했고,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9.6%에 불과함
- 청소년쉼터에 오게 된 청소년은 안전하지 못한 가정문제로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가정 밖을 선택한 경우가 많음

■ 가정 밖 청소년 인식 조사, 우리들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는 중

- 일반인들에게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단어 빈도가 높음. 하지만, 보호가 필요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가족문제와 같이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단어들도 제시되어 다양한 맥락적 상황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에게는 사회가 가정이 되어 주어야

-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상황적인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
- 이들에게는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립의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해 필요

■ 따뜻한 시선에서 온전히 사회에 두발로 설 수 있도록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 인식 변화의 시작이 촘촘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정책 및 서비스까지 확대 될 것



- 김세진, 송영주, 김경은, 최수정(2021).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부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2019).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113-144.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84.
-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전경숙, 이의정(2012).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9).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Swartz, T. T. (2008).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8(119), 11-24.
- 김태홍. (2021.03.03.). 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성공적 자립 지원. 제주환경일보.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94>
- 김한솔. (2020.08.11.). 월드비전,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298346>
- 이종민. (2021.11.24). 부천시, 가정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284>
- 이재혁. (2021.08.09.). '홈리스 청소년 쉼터·자립 및 주거지원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61>
- 정영석. (2022.07.05.).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자산형성 등 자립지원. 경인매일.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287>
- 최병석. (2021.08.09.). 가정 밖 청소년 지원강화. 뉴제주일보.
<http://www.je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8168>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 경기도조례 제6959호, 2021. 3.16

